

2010 EAI 사회과학 대강좌

# 역사 속의 젊은 그들



민세 안재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하영선

E - Mail : ysha@snu.ac.kr



# I. 만남

1. '민세' 적 고민의 공유



# 1. ‘민세’ 저 고민의 공유

---

✓ 가. 1980년대: 용미론

✓ 나. 1990년대: 자주적 세계화

✓ 다. 2000년대: 그물망외교  
    늑대거미 다보탐 쌓기



# I. 만남

---

## 2. 한국 민족주의의 문제

## 2. 한국 민족주의의 문제

---

✓ 가. 기원

✓ 나. 제국민족주의 vs. 저항민족주의

✓ 다. 미래



# I. 만남

---

3. 북한로의 역사



## II. 삶

---

1. 국내수학과 이보유학  
리수학



# 1. 국내수학과 일본유학(1891년~1914년)

년도	나이	내용
1891년	1세	12월 30일(음력 11월 30일) 경기도 진위군(지금 평택군) 고덕면 두릉리 646에서 순흥 안씨 윤섭과 남양 홍씨의 8남매 중 2남으로 출생
1896-1897년	6세-7세	고향에서 한문 수학
1905년	15세	화성의 경주 이씨 정순과 혼인
1907년	17세	고향 두릉리의 한문 수학을 중단하고 평택의 사립 진흥의숙 입학. 이어 수원의 기독교계 사립학교로 전학하여 단발. 서울 황성 기독교 청년회(서울YMCA 전신) 중학부에 입학하여 3년간 신학문 수학. <미국독립전사>, <서사건국지>, <이태리건국삼결전>, <월남망국사>, <파란국말년전사>, <음빙실문집>, <자유서> 읽음.



# 1. 국내수학과 일본유학(1891년~1914년)

1910년	20세	9월 일본 동경으로 유학. 청산학원에서 1년동안 어학 준비, 동경 조선인 YMCA에 관여.
1911년	21세	3월-4월 동경에서 이승만과 접촉. 그후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발행하는 『태평양 잡지』에 기고하고 지국을 맡기도 함 9월 동경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에 입학 10월 동경에서 대한흥학회의 후신인 조선인 유학생 학우회 조직을 주동. 중국의 신해 혁명에 자극을 받아 조소앙과 함께 중국 망명을 시도하다가 헌병대에 검거되었으나 풀려 나옴
1913년	23세	여름. 상해 북경 심양등지를 여행. 동제사에 가입
1914년	24세	여름.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귀국





## 2. 국내활동과 징역생활(1915년~1923년)

년도	나이	내용
1915년	25세	5월 중앙학교의 학감이 됨(교장 유근). 7월 장남 정용 출생.
1917년	27세	중앙학교 학감 사임. 중앙기독교청년회의 교육부간사(총무 윤치호). 대중교 신도가 됨
1918년	28세	5월 차남 민용 출생.
1919년	29세	5월 서울에서 대한민국 청년 외교단 비밀 조직에 참여, 11월 청년외교단 조직이 대구에서 발각되어 검거됨.
1921년	31세	5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형 확정
1922년	32세	대구에서 출옥
1923년	33세	출옥 후 후유증 치료를 위해 요양



## II. 삶

---

### 3. 조선일보와 신간회



### 3. 조선일보와 신간회(1924년~1931년)

년도	나이	내용
1924년	34세	<p>1월 연정회 조직에 참여 하였으나 반발이 심하여 유산됨.</p> <p>4월-6월 언론집회 압박 탄핵운동의 실행위원이 됨.</p> <p>5월 시대일보에 논설기자로 입사(사장 최남선).</p> <p>7월 시대일보 경영에 보천교가 개입하여 발생한 분규로 퇴사.</p> <p>9월 조선일보에 주필겸 이사로 입사(사장 이상재, 부사장 신석우)</p>
1925년	35세	<p>4월 제1회 조선기자대회 부의장(의장 이상재)</p> <p>7월 딸 서용 출생.</p> <p>9월 조선사정연구회 참여 (백남운, 박찬희, 백관수, 김준연, 조병옥, 홍명희, 유억겸 등).</p> <p>12월 태평양문제연구회 참여(신흥우,윤치호,이상재,조병옥,유억겸등)</p>
1926년	36세	<p>5월-6월 조선일보 주필로 「통곡하는 군중 속에 서서」 등 사설 집필</p>

### 3. 조선일보와 신간회(1924년~1931년)

<p>1927년</p> <p>37세</p>		<p>1월 「조선신문사론」을 『조선일보』에 연재.</p> <p>2월 신간회 창립시 총무부 총무간사에 피선(회장 이상재, 부회장 권동진).</p> <p>8월 『조선일보』 사설 「제왕의 狙落」을 집필. 압수됨.</p> <p>9월 『조선일보』 주필로서 발행인을 겸함.</p> <p>12월 재만동포 옹호동맹의 위원장에 피선.</p>
<p>1928년</p> <p>38세</p>		<p>1월 『조선일보』 사설 「保釋 遲延의 희생」에 대한 발행인 책임으로 편집인 백관수와 함께 구속되어 금고 4개월의 선고를 받음(2차 옥고).</p> <p>4월 『조선일보』에 시평 「구명운동」을 집필, 압수됨.</p> <p>5월 『조선일보』 사설에 「濟南事件의 壁上觀」의 집필로 구속되어, 조선일보 발행인에서 물러나고 이어 금고 8개월의 선고를 받음(3차 옥고).</p>



### 3. 조선일보와 신간회(1924년~1931년)

1929년	39세	<p>1월 출옥하여 조선일보 부사장이 됨(사장 신석우).</p> <p>3월 조선일보 생활개선운동을 주도. 7월 이후 학생농촌계몽운동인 귀향남녀학생 문자보급운동으로 이어짐.</p> <p>12월 광주학생운동 진상보고 민중대회사건으로 구속됨. 기소 유예(4차옥고).</p>
1930년	40세	<p>1월 「조선상고사관견」을 조선일보에 연재.</p>
1931년	41세	<p>5월 신석우의 후임으로 조선일보 사장 취임. 신간회해체후 민족단체통제협회의의 조직을 시도했으나 유산됨.</p> <p>6월 1932년 5월까지 여순감옥에 복역중인 신채호의 「조선사」와 「조선상고문화사」를 조선일보에 연재.</p> <p>7월 조선일보 사장으로 발행인을 겸함.</p> <p>10월 조선일보 사장으로 편집인을 겸함. 滿洲同胞遭難問題協議會 조사선전부 상무.(위원장 윤치호)</p>



## II. 삶

4. 민세주의와 조선학



## 4. 민세주의와 조선학(1932년~1944년)

년도	나이	내용
1932년	42세	<p>3월 만주동포 구호 의연금의 유용 구실로 조선일보 영업국장 李昇馥과 함께 구속(5차 옥고).</p> <p>4월 조선일보사장을 옥중에서 사임.</p> <p>11월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미결통산으로 출옥.</p>
1934년	44세	<p>6월 단군유적으로 전하는 구월산을 등반하고 「구월산등람기」를 동아일보에 연재. 정인보와 함께 「여유당전서」를 교열하고 丁茶山에 관한 논문들을 『신조선』에 발표.</p>
1935년	45세	<p>5월 조선일보의 客員으로 「民世筆談」을 연재하기 시작.</p> <p>7월 「朝鮮新聞小史」를 조선일보에 연재.</p>

## 4. 민세주의와 조선학(1932년~1944년)

1936년	46세	정필성을 남경소재 민족혁명당의 김두봉에게 추천했다는 이유로 종로경찰서에 구속(軍官學校學生事件). 보석후 고향에서 한국 상고사 집필시작.
1938년	48세	4월 부인 이정순 별세. 5월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서대문경찰서에 검거되어 3개월 만에 석방됨(7차 옥고). 10월 군관학교 학생 사건에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다시 입감(8차 옥고)되어 1939년에 출옥한 듯함.
1940년	50세	고향에서 조선상고사 저술 속개
1941년	51세	1월 益山의 盆城 김씨 富禮와 재혼. 이 해 한국상고사 논문완성(『조선상고사감』). 『조선통사』 집필 시작



## 4. 민세주의와 조선학(1932년~1944년)

1943년	53세	3월 조선어학회 사건 불기소로 홍원에서 석방됨
1944년	54세	4월 모친 남양홍씨 별세. 「三一神話註」 완성. 12월 일제는 시국 수습책으로 안재홍. 여운형과 접촉을 시도. 민세는 여운형과 함께 民族自主, 互讓協力, 摩擦防止의 3원칙을 제시

## II. 삶

5. 해방이후 정치활동



## 4. 해방이후 정치활동(1945년~1965년)

년도	나이	내용
1945년	55세	<p>5월 여운형과 함께 일본에 민족대회 소집안을 제시</p> <p>8월 15일 일본 항복후 총독부가 조선치안문제를 여운형을 통해 의뢰.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부위원장이 됨.</p> <p>8월 16일 건준 부위원장 자격으로 서울 중앙방송에서 「해내 해외의 3천만 동포에 고함」을 전국에 방송.</p> <p>9월 2일 동경만 미함상에서 일본 항복문서 조인 9월 4일 건준위를 탈퇴. 9월9일 38도선 이남의 일본군대표와 조선총독이 미군에 항복하고 남한에 미군정 시작.</p> <p>9월 20일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탈고. 12월 민우사에서 간행.</p> <p>9월 국민당을 조직하고 중앙집행위원장이 됨. 부위원장 명제세, 박용익.</p> <p>12월 29일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에 피선 (위원장 권동진, 부위원장 안재홍, 김준연)</p>

## 4. 해방이후 정치활동(1945년~1965년)

1월 중경 임시정부의 주도로 소집한 비상국무회의의 주비회장이 되고 비상국민회의(의장 홍진)가 이승만 김구에게 전형을 일임한 최고 정무위원의 1인으로 선출되어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피선됨. 주한 미군사령관의 자문기관인 남조선 대한민국대표민주위원회의 의원으로 자동 피임(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규식, 총리 김구)

1946년

56세

2월 『한성일보』를 창설하여 사장에 취임

3월 민족주의계 합당운동으로 국민당을 한국독립당에 통합하고 한독당의 중앙상무위원 및 훈련부장에 피임(중앙집행위원장 김구, 부위원장 조소앙)

7월 민주위원과 비상국민회의 합동회의에서 좌우합작위원회 우측대표로 지명됨

10월 『한성일보』 중문판을 창간 (뒤의 『한성중화일보』)

12월 미군정 과도입법위원회 의원에 피임(의장 김규식, 부의장 최동우 윤기섭)



## 4. 해방이후 정치활동(1945년~1965년)

1947년	57세	<p>2월 미군정에서 한국인최고책임자인 민정장관에 취임</p> <p>6월 『조선상고사감』 상권(서울, 민우사) 간행. 한독당에서 제명되고, 신한국민당 및 시국대책협의회 창립에 관여</p> <p>9월-10월 민주독립당 및 한국민족자주연맹 창립에 관여</p> <p>11월 우익계정당과 사회단체로부터 '군정연장의 책동' 비난을 받음</p>
1948년	58세	<p>2월 민정장관 자격으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협의대상이 됨</p> <p>4월 『조선상고사감』 하권(서울, 민우사) 간행</p> <p>5월 남한 단독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우익 각 세력의 참가를 주장</p> <p>6월 대한민국 국회개원과 함께 미군정장관직을 사임</p> <p>9월 신생회를 설립하여 '신생활 구국운동'</p>

## 4. 해방이후 정치활동(1945년~1965년)

1949년	59세	<p>1월 이승만, 김구, 김규식 3영수의 회동을 주선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함.</p> <p>5월 대중교의 정교 및 원로원 참의에 피임되어 대형의 칭호를 받음. 『한민족의 기본진로-신민족주의 건국이념』 (서울, 조양사) 간행. 서울 돈암동에서 중앙 농민학교를 설립하여 경영.</p>
1950년	60세	<p>5월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평택구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 당선</p> <p>6월 27일 북한군의 서울 점령후 서울에 은거</p> <p>9월 21일 정치보위부에 연행되어 26일 북한으로 납북됨</p>
1956년	66세	<p>9월 북한 평화통일추진협의회 최고위원</p>
1965년	75세	<p>3월 1일 평양 시내 모병원에서 사망</p> <p>3월 3일 평양에서 장례식 거행(장의위원장 홍명희)</p>





### III. 압

#### 1. 민세 제 1기: 민중의 세상

# 1. 민세 제 1가: 민중의 세상

## ✓ 가. 1910년 國亡

1911년 ‘심히 장대한 기개와 포부’ 를 표현하기 위해 ‘민중의 세상’ 이라는 뜻으로 ‘民世’ 라는 호를 정함.

## ✓ 나. “吾人은 이제 個人我로서, 民族我로서, 社會我, 人類我로서, 가장 逼迫과 抑壓과 冒險과 蹂躪이 없이, 그의 權威와 尊嚴과 安全과 幸福의 온갖 권리와 기회를 均等的으로 享受하여야 할 것이요.....” ( “朝鮮日報의 新使命: 民衆에게 申明함” 조선일보 1924/11/1)



### III. 압

2. 미세 제 2기:

신간회 "안" 의 복합론

## 2. 민세 제 2가: 신가회 “안”의 복합론

---

- ✓ 가. 일선용화파 / 문화파 / 독립파 / 사회주의파 (개벽 1923.12)
- ✓ 나. 사회주의파 / 비타협민족주의 / 타협민족주의 / 친일파



## 2. 민세 제 2가. 신간회 “안”의 복합론

- “사회운동자들을 현하 그 정치적 분야의 最左翼이라 할진대, 민족운동의 인사 들은 그의 중앙당일 것이요, 소위 親日者流들은 그 최우익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親日者流가 과연 엄정한 一派系를 지을는지 자못 의문에 속한 자들이 다..... 사회운동자와 민족운동자의 좌우의 양익이 있고, 그 외에 따로 親日 者流라 범칭할 수 있는 자못 界線이 선명치 못한 一派가 있다고.....” (‘朝鮮人の 政治的 分野-旗幟를 鮮明히 하라’ 조선일보 사설 1925.1.21)
- “만일 統治群들의 정책이 그 左翼(對日非妥協路線)의 운동에 대하여 금일과 같 거나 또는 금일이상의 억압으로써 하고, 右傾的 계통(對日妥協路線)에 대하여 직접 혹 간접의 조장을 아끼지 않는다 하면..... (‘朝鮮 今後의 政治的 趨勢’ 조선일보 사설 1926.12.16-19)

## 2. 민세 제 2가: 신간회 “안” 의 복합론

### ✓ 다. 신간회의 창립과 해소

- 이광수 “민족적 경륜: 동아일보 1924.1.1
- 研政會 1924.1
- 조선공산당 창립 1925.4
- 조선사정조사연구회 1925.9.15
-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 1925.1
- 신간회 1927.2. 창립 / 1930.12 부산지회 김봉한  
해소론 / 1931.5 해산



### III. 압

3. 미세 제 크기:

민세주의적 민족적 국제주의  
/ 국제적 민족주의

### 3. 민세 제 3가: 민세주의 민족적 국제주의/국제적 민족주의

✓ 가. 1929-1933년 세계대공황

1931년 만주사변과 일본의 군국주의화

✓ 나. “안”의 복합론에 이어 “밖”의 복합론

✓ 다. 민세주의

• ‘세계로부터 조선에’ ‘미래를 지나 금일에’

(조선기명논설 1935.b)

• “조선과 조선인-문화적 정진을 요하는 현하 과정”

(신동아 1935.1)



### III. 압

4. 민세 제 4기: 신민족주의

## 4. 민세 제 4가: 신민족주의

### ✓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1945.9)

민주주의, 민족주의, 국제주의의 복합화

안: 민족내 각 계층의 협동 공동체: 다사리 이념

밖: 국제협동 분담자로서의 민족국가



## IV. 전세계 20세기 복합론의 실패와 영향

歴史

# 민세 20세기 복합론의 실패와 영향

- ✓ 가. 20세기 복합론의 실패
  - 싸우면서 품어야 할 국내외의 상대역량 다루기 실패
  - 민세주의를 추진할 중앙당 건설 실패
  
- ✓ 나. 21세기 복합론의 성공 가능성



